

“5·18 논문 수백편이지만 전문 연구자 부족”

■40주년 이후 5·18 방향 토론회 대학원 석·박사 과정 만들어 젊은 연구자 양성 나서고 학교밖 시민교육 확대해야

내년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전문 연구자를 양성하고 연구성과물을 교육에 연계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 관련 학술논문은 매년 수십건씩 쏟아지고 있지만, 5·18 전문 연구자는 극히 일부인데 5·18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연구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열린 ‘40주년 이후 5·18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토론회’에서 최정기 전남대 5·18연구소장이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5·18 관련 학술논문(2006~2015년)은 모두 294명이 433편을 발표했다. 이는 6·25전쟁을 제외한 단일 사건 관련 논문 중 가장 많은 양이다.

이번 토론회는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공동 주관으로 40주년 이후 5·18 학술연구와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5월운동 관련(기억·과거 청산)이 103건(23.8%)로 가장 많았고, 의미·성격 규정이 101건(23.3%)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예술·문화운동(84건), 5·18사건 관련(47건), 5월 운동의 영향과 효과(34건), 5·18과 지역·반미(27건), 5·18과 다른 사건 비교(16건), 애곡(13건), 교육(8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 소장은 매년 평균 43.3건이라는 적지 않은 5·18 관련 논문이 작성되고 있지만, 대부분 독자적인 연구가 아닌

‘끼워넣기식 연구’라고 주장했다. 원인으로 5·18 전문 연구자 부족을 지목했다. 발표자 294명 중 1편만 작성한 사람(216명, 73.5%)이 대부분이었고, 5편 이상 발표한 연구자는 11명(3.7%)에 그쳤다.

최 소장은 5·18을 경험한 기존 연구자들은 부채의식에 의해 5·18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후속 세대들은 특별한 열정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소장은 “5·18 전문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 석·박사를 배출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년 단위 이상 프로젝트에 연구비가 지원돼야 하고 전국·국제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토론회에 최 소장장과 함께 발표자로

나선 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는 40주년 이후 5·18 교육에 대해 학생은 물론 시민도 대상에 포함시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연대 의식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시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 제주 4·3, 세월호 사건에 5월 정신이 연계되는 점을 들어 교류협력 강화, 공동행사 개최 등을 통해 실천적 시민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교사는 또 5·18 논문 중 교육 관련은 8편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 교사는 “5·18기념재단과 5·18기록관, 정부·보훈처·광주시·시 교육청 등이 망라해 가칭 ‘5·18 민주학교’를 설립하고 연구 성과물을 교육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추석 대목 붐비는 남광주시장 추석을 앞두고 8일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이 이른 아침부터 제수용품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0 해질 18:49 달뜨기 01:21 달지기 01:21

대중 지나니 또 비 소식
흐리고 비 오다 오후에 소강상태 보이는 곳 있겠다.

광주	비	23/29	보성	비	22/27
목포	비	23/29	순천	비	23/29
여수	비	24/27	영광	비	22/29
나주	비	23/29	진도	비	22/28
완도	비	23/27	전주	비	23/29
구례	비	22/29	군산	비	23/28
강진	비	23/28	남원	비	22/29
해남	비	22/28	축산도	비	21/25
장성	비	22/29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0~2.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동~남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1.5~2.5	동~남동	1.5~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2.5	북~북동	1.5~2.5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 보통: 자외선
- 좋음: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24	10:19
여수	16:09	23:38
	00:31	05:57
	12:01	19:05

◇주간 날씨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	☁	☁	☀	☁	☁	☁
23/30	22/29	21/28	21/29	21/29	21/29	20/28

조선훈 총장 선거 박대환·민영돈·이봉주·윤창륙 등록

조선대학교 총장 선거에 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6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박대환 외국어대학 독일어과 교수, 민영돈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 이봉주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윤창륙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교수(후보 등록순)가 등록했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초빙 공고에 응모한 입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10일까지 자격 심사를 해 입후보자를 확정한다. 선거는 합동연설회,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치러질 예정이다. 구성원 직접 선거 방식으로 하도 교원 75%, 직원 13%, 총학생회 8%, 총동창회 4% 등 비율을 반영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경찰청 7~8월 신고 기간 데이트 폭력 4천여건 접수 2천여명 입건·82명 구속 폭행·상해가 64% 달해

경찰청은 “7~8월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4185건의 신고를 받아 2052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입건자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82명을 구속했다.

데이트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64.1%)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체포·감금·협박(9.6%), 주거침입(5.5%) 순이었다.

가해자 연령대는 20대(35.7%)가 가장 많았고 30대(24.5%), 40대(19.4%), 50대(13.4%)가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25.7%), 회사원(14.6%), 자영업자(9.2%)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중 신고 기간 피해자 보호와 홍보 활동도 강화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연계하고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1926건의 피해자 보호 활동이 이뤄졌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피해자나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등 경찰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자 심리상담·치료비 지원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스토킹 처벌법’도 조속히 입법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의과·치의과대학 ‘마지막 편입’

2020학년도 조선훈 61명 등 전국 15곳 385명 모집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들이 ‘마지막 편입생’을 모집한다. 한시적으로 이어오던 의대와 치의대 학사편입학이 2020학년도 모집을 끝으로 종료된다.

8일 교육부의 ‘2020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의대 11곳과 치의대 4곳이 각각 307명, 78명의 2020학년도 학사편입학을 추진한다.

광주에서는 조선훈대학교가 의대 37명, 치의대 24명을 선발한다.

이밖에 의대 학사편입학을 모집하는 대학은 ▲가천대 12명 ▲가톨릭대 28명 ▲경북대 33명 ▲경상대 23명 ▲경희대 33명 ▲부산대 37명 ▲이화여대 23명 ▲인하대 15명 ▲전북대 33명 ▲충남대 33명이다. 치의대는 ▲경북대 18명 ▲경희대 24명 ▲전북대 12명이다.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의 학사편입학은 2015~2016학년도부터 이어져온 한시적인 조치로, 2020학년도 모집이 마지막이다.

교육부는 2005학년도 도입한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해 자연계열 학생들이 학부 공부보다 의·치전원

입시에 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2010년 의·치전원 체제 유지하거나 의·치대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대학이 4년제 의·치전원을 6년제 의·치대로 전환했고, 2년간 공백 발생으로 의사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한시적으로 의대·치의대 정원의 30%를 학사편입학으로 선발했다.

의·치대 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 소지자나 2020년 2월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내년 3월 입학 시점에 맞춰 의대·치의대 1학년인 3학년으로 진학하게 된다.

조선훈을 비롯한 지역대학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조선훈은 의대의 경우 37명 모집 중 15명(40.5%), 치대의 24명 중 15명(62.5%)을 ‘광주·전남지역 고교 출신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학사편입학 일정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학교별 전형을 거쳐 12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각 학교별 전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전남경찰 교통안전 위협 100일 특별단속

난폭·보복운전...구속 등 강력처벌

전남경찰청은 “9일부터 100일간 교통안전 위협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 불안감 확산에 따른 선제 조치다.

전남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가용 경력 및 장비를 집중 투입해 교통안전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버스·엘리베이터 모니터와 옥외 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교통 안전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경찰은 또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 운전 등 위험운전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몰수)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월 1회 이상 합동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관서별로 주·야간 불법 스쿠터등식 불시 음주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연말까지 보행자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신종택 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안전 위협행위는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www.seogwangju.nonghyup.com

따뜻한 나눔, 행복한 동행

조합원님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고
신뢰받는 서광주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광주농협동조합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명지점 062)381-821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화 정 지 점 062)372-0421~3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덕하나마트 062)373-3235 ·운 천 지 점 062)371-2772~3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동문지점 062)528-2640~2 ·유 동 지 점 062)512-1984~5 ·하나로마트동점 062)511-2901~3
·버 들 지 점 062)381-1971~2 ·농성지점 062)361-4472~4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용산지점 062)526-0222~3 ·운 암 지 점 062)527-3295~6